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Gathering Clouds>

October , 2016

WIDE View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Gathering Clouds》

국제갤러리 1관, 3관 (K1, K3) 8.31-10.30

국제갤러리는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형태를 다루어 온 현대미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의 개인전 《Gathering Cloud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3년 및 2008년에 이은 국제갤러리 세 번째 개인전으로, 재료의 물질적인 특성과 비정형적인 형태를 표현한 근작 19점을 K1 및 K3 전시장에서 소개한다. 독립적으로는 기묘한 독특성을 지니면서도 각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군집된 구름들 (Gathering Clouds)》와 《비 정형 (Non-Object)》 시리즈는 작품의 재료와 형태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작가 특유의 이미지의 반사와 왜곡 그리고 전환을 통해 시공감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해온 카푸어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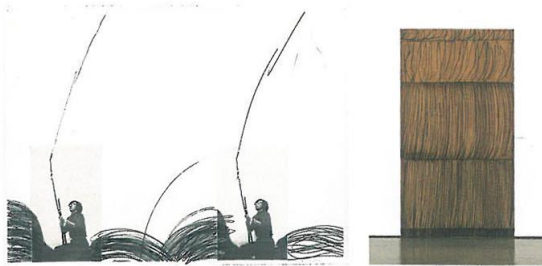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아니쉬 카푸어의 신작 “트위스트” 시리즈는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 중 새로운 버전의 작품이자 스테인리스 강철로 가공된 조각 작품으로, 물체에 적용된 힘이 절제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표현한다. 카푸어는 《비 정형 (Non-Object)》를 비롯한 트위스트 조각 연작을 통해 대상의 내적이고 기하학적 형식과 반사되는 표면을 결합함으



로써 독해의 모호함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소멸이 일어나는 모호한 상태를 다루고 있다. 이 “트위스트” 들은 상징이자 동시에 공간 속의 실체들로, 고대의 수학적 공식들 혹은 공학적 기법비들을 떠올린다. ㉞

이건용 개인전 《Event-Logical》

갤러리 현대 8.30-10.16



이번 전시의 제목 ‘이벤트-로지컬(event-logical)’은 작가 이건용이 자신의 행위미술을 지칭해온 용어이다. 이건용은 1975년 발표한 《동일면적》과 《살내축장》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여에 걸쳐 40개가 넘는 행위미술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의 그 어떤 작가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작가의 몸이 예술을 통한 소통에 있어 가장 탁월하고 직접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작가적 신념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건용의 1970년대 중후반 행위미술에 방점을 놓은 이번 전시는, 선별된 행위미술 작업

의 재연과 더불어 관련 작품, 드로잉, 기록 사진 등을 선보임으로써 이건용의 작업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의 작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신체, 장소, 관계 등에 대한 독창적인 미학과 사유뿐만 아니라, ‘논리’라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당대 한국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대한 예술적 소통을 추구했던 태도에 대해서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Space and Time 미술학회 (ST)’를 이끌고, ‘AG (이방가르드)’ 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당대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흐름의 최전선에 서있었던 이건용은 1973년 파리비엔날레,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1970년대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간명한 행위와 군더더기 없는 논리적 사건의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이벤트-로지컬’은, 한국 행위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시 《이벤트-로지컬》은, 이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도록 실험정신을 견지하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작가 이건용의 30대 시절 즉 작가가 가장 정력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시기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살펴으로써, 작가의 작업 세계를 심도 깊은 차원에서부터 이해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㉞